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노사상생 해법”

노사발전재단·지노위 1일 제주노동포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상용)와 공동으로 1일 제주아스타호텔 아 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 성과와 노동자의 워라벨(일·생활 균형)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는 배규식 박사(전 한국노동연구원장·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장)가 맡았다. 배 박사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제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주노동권익센터 등 제주



노·사·민·정의 핵심 주체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워라벨을 제공하는 노사상생의 출발점”이라며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터혁신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대 문은빈 학생 우수포스터상

제주대학교 문은빈(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 4·사진)학생이 최근 열린 2026 대한심장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하계심포지엄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국내 심혈관 임상·기초·중개연구 분야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이 심포지엄에서 문은빈 학생은 학부생으로는 유일하게 포스터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근경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허혈-재관류 손상과 심장 기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바이오소재 기반 치료 전략을 탐색한 연구를 통해서다.

해당 연구는 제주대 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 심혈관 재생의학연구실 박봉우 교수의 지도로 수행됐으며, 고려대학교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고정훈 신임 서장 해수욕장 현장 방문

고정훈 제27대 제주소방서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1일 여름철 안전관리 현장을 찾으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고 서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삼양해수욕장과 이호해수욕장을 방문해 피서철 수상 안전관리 활동 상황과 근무 여건을 살피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현장 근무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과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총재 이·취임 쌀 기탁

조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는 지난달 30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제로타리 3662지구 총재 취임식에서 제13대 총재로 취임한 강형권 총재로부터 쌀 1t을 전달받았다.



제주도새마을회 라오스 학교 찾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달 25~29일 라오스 나싸이통구 마을 일라이중·고등학교를 찾아 울타리 100m를 준공하고 교실 4개소에 천장 및 외벽마감 공사를 했다. 칠판 등 학용품도 지원했다.



제주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성료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회장 김인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한라아트홀에서 ‘2026년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은 이화선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지혜 제주시 노인복지과 주무관, 김현주 제주한라대 간호학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고산1리경로당의 ‘순가락나타’ 공연과 라파플룻양상블의 플루트 연주, 한울간병봉사회의 가요메들리와 민요, 색소폰 연주 등의 공연도 이뤄졌다.



제주보건소, 한국병원서 건강증진 교실

제주보건소는 지난달 30일 한국병원에서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필리핀 3780지구와 그랜트 사업 추진

국제로타리, 뇌병변장애인 자립 지원

국제로타리 3662지구는 필리핀 국제로타리 3780지구와 공동으로 글로벌 그랜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3만6000달러(한화 약 5000만원)를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 고용 연계형 직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는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5지역 소속 로타리클럽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봉사 사업으로 제주무궁화로타리클럽이 호스트 클럽을 맡는다. 컴퓨터 활용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제로타리 3662지구와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지회(회장 2025년 6월 협약 체결 이후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결실이다. 로타리 측은 “장애인의 직업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제주도수출육가공협의회 공식 출범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 확대와 육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14개 육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제주도수출육가공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제주양돈농협 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중앙고봉사회 홀로 사는 어르신 반찬 전달

제주 중앙고봉사회(회장 홍기찬)는 1일 ‘제주시홀로 사는노인지원센터’가 주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동참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어르신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했다.

제주↔일본전세기 3월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선발권 특가 (한달간~7.15일까지)
1,099,000 → 999,000

※ 양국정부 인허가조건 ※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황산 1,199,000원

오진 1,199,000원

상해 1,099,000원

광복절연휴 항주, 상해 4일
8.14(금)-17(월,대체휴일) **1,099,000원**